

IIIRI Online Series

코로나와 트럼프 이후 중국경제

지 만 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 12. 24

코로나와 트럼프 이후 중국경제



지 만 수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와 트럼프는 중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세계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과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의 발원지이면서도 방역에 먼저 성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켰다. 2020년 중국은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2% 내외의 플러스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IMF는 2021년 중국이 8.2%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역 성공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좀 길게 보면 2010년 이후 이른바 “성장전략의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꾸준히 내수중심의 성장구조를 구축해온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세계경제의 대붕쇄 속에서도 국내의 소비와 투자를 활용하여 상당한 성장공간을 만들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가 초래한 세계적인 변화 과정에서 중국경제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의 수출은 2020년 하반기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어 10월에는 11.4%, 11월에는 21%라는 놀라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해외생산에 따르는 리스크를 체감하면서, 생산을 가급적 국내에 유지하는 이른바 리쇼어링(re-shoring), 또는 온쇼어링(on-shoring)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했다. 정확히 말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에서 생산 (safe-shoring)하고자 할 것이라는 얘기다. 팬데믹의 진원지였던 중국에서 탈출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중국이 거꾸로 그 변화의 수혜자가 되고 있다. 지금 세계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지속해 줄 수 있는 생산기지는 그리 많지 않다. 중국, 한국, 베트남, 대만 정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세계무역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방역에 성공한 나라에는 안전한 생산기지과 공급처를 찾는 각국의 수요가 집중된다. 그 결과 중국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고, 세계수출시장 점유율이 2019년 12.7%에서 2020년 8월에는 14.3%로 높아졌다. 하반기 수출 증가를 반영하면 2020년 말에는 16%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렇게 한번 점유율이 높아지면 코로나가 진정된다고 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번 조달선을 바꾸면 특별히 다른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결국, 코로나 이후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안전한 생산기지이자 조달처로서 그 값을 더 높였다.

트럼프 시대 또한 중국의 대외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낳았다. 즉 미국의 전방위적인 중국견제가 시작되었으며, 그것이 미국 내의 컨센서스 (consensus)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시대에도 전방위적 견제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에게 이는 코로나보다 더 큰 도전이다.

이 도전에 대해 중국이 내놓은 답은 이른바 “국내대순환(國內大循環)”이다. 즉 14차 5개년 계획 등을 통해 중국은 “국내대순환을 위주(爲主)로 하고, 국내·국제 이중순환이 이를 촉진”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과학기술의 자립자강(自立自強) 등도 강조하고 있다. 방점을 ‘국내’에 찍고 있는 고립주의적 성장 비전이다.

WTO 가입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을 활용한 수출과 투자로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중국이 스스로 고립을 선택할 리는 만무하다. 그렇지만 중국이 보기에 미국의 중국견제는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공산당도 미국에 양보할 생각이 없다. 결국, 중국은 대외경제환경의 장기적 악화를 각오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절반쯤 ‘강요된 고립’이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믿는 것은 거대한 국내시장이다. 14억 인구, 1인당 소득 만 달러, 6% 내외의 성장이 제공하는 시장이다. 그것은 40년 고도성장의 결과이기도 하고, 지난 10년간 중국이 추진한 “성장전략 전환”의 성과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게 숨을 쉴 성장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반면 지금 중국에게 부족한 부분은 혁신과 산업고도화를 유지할 동력이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틀어막고 국가주도적 산업지원 정책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제조업 2025” 식으로 선진국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거꾸로 선진국을 추격하는 전략은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

“국내대순환”의 의미는 중국이 이 산업고도화의 경로를 바꾸려고 시도한다는 데 있다. 14차 5개년계획에는 “내수확대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혁신과 고도화된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조하게 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공간을 개척”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수요측(시장)과 공급측(혁신과 고도화)의 상호촉진, 그것이 “국내대순환”의 중요한 의미이다. 이는 미국과의 대결 속에서 이제는 혁신과 산업고도화의 동력을 중국 내부에서 찾아야 하고 이를 실현할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이후 시대에 중국이 처한 현실을 반영하는 고민이다.

중국이 발표한 7대 신형인프라 구축전략이 그 구체적인 작동 모델이다. 5G 기지국, 특고압송전망, 고속철도/도시철도, 신에너지차량충전소, 빅데이터센터, AI, 산업인터넷망 등 7개 분야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느 나라나 다 하는 첨단산업 육성계획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런 신기술·신산업 분야는 기존 산업과 다른 특징이 있다. 기존 산업들은 이미 형성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안에서 공급자들이 경쟁하면서 시장을 점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원래 없던 시장에서 출발하는 신산업은 먼저 누군가 세계 최초의 시장을 형성하면 산업도 그리로 모이게 되어 있다. 시장과 산업이 동시에 형성된다. 중국은 이미 고속철도,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과 산업을 동시에 성장시켜 세계 1위가 된 바 있다. 이걸 5G, 전기차,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다시 한번 실현해 나가겠다는 야심 찬

시도이다.

앞으로 중국이 국가주도적 지원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는 모델은 점점 작동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국은 그 대안으로 신산업 분야에서 정부가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신산업의 시장, 기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 고도화 경로와 동력을 국내에서 형성하겠다는 목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되겠다는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워지니, 아무도 없는 시장에서 시장 선도자(first mover)가 되겠다는 비전일 수도 있다.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는 중국에게 망외의 전화위복이자 새옹지마가 되었다. 트럼프가 시작한 전방위적 중국견제는 중국을 고립적 발전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고립은 고립이되 도전적이다. 다만 그 끝에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신산업의 선도자가 될지, 국내시장에 갇힌 우물 안 개구리로 남게 될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끝/

저자 소개

지만수 박사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중국경제와 한중 경제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및 북경사무소장, 동아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북경어언대학, 중국인민대학, 북경대학, 존스홉킨스대학,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등에서 연수하였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환경의 변화와 국내 금융사의 대응 과제』(2018), 『대중수출 둔화의 구조적 원인과 대응전략: 수입대체와 생산기지 이전 효과』(2017) 등의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Email: jmansoo@kif.re.kr)